

언어는 어떻게 인간을 지구의 정복자로 만들었나

「서양지성사와 철학」, 「언어심리학」 강의 페어링

: 심리학과 201721845 이하영 / 송하석 교수님 지도

서양
지성사와
철학

Question
다른 동물들에 비해 신체적 조건이 불리한 인간.
그러나 다른 동물들을 집에서 키우기도 하고,
동물원을 만들어 구경하기도 한다.
“인간은 어떻게 지구의 정복자가 되었을까?”

Answer
언어 심리학의 주제와 개념들을 근거 삼아
철학적 질문에 대해 대답한다.
“언어가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게 했다.”

언어
심리학

정복²(征服) : 2. 다루기 어렵거나 힘든 대상 따위를 뜻대로 다룰 수 있게 됨
용례 : 외국어 정복 / 근대인은 과학을 가지는 그날부터 자연을 이용과 지배와 정복의 대상으로 보게 되었다.(안병욱, 사색인의 향연) *출처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인간이 지구의 정복자’라는 표현의 ‘정복’ 역시 ‘뜻대로 다룰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이때 ‘뜻대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은 **능력과 가능성의 문제**이지 권리나 자격의 문제가 아니다. 나는 인간이 자연을 마음껏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언어를 통해 어떻게 인간이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Part1. 언어의 어떤 점이 인간을 지구의 정복자로 만들었는가

[1] 언어의 보편적인 특성

의미성
: 언어신호는 상징(symbol)

‘사과’ : 사과 맛, 사과 향의 붉은 열매

분리성에 기여
간단하게 표현하게 함

임의성
: 표기-대상 연합 임의적

사회를 기반으로 하며
사회 통합에 기여함

분절성
: 분절적(비연속적)단위로 구성

‘꿀꿀’ ≠ 실제 돼지 울음 소리

전달 시 오해 소지 적음
생산성에 기여

이중구조
: 복합적인 구조 가짐

음소→형태소→단어

문법에 중요한 특성
생산성에 기여

생산성
: 새로운 단위 계속 생성

비옥한 표현
환경 적응, 정보 전달 등

분리성★
: 시공간적 제약과 분리

미래 이득 담보 계약 가능
추상, 허구적 창작

[2] 소통의 도구로서의 언어

인간 언어는 고차적인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추론모형
(의도 파악)

협동의
원리

조정장치
사용

공통기반
형성

언어의 사용은 위와 같은 상호작용 과정이고, **인간의 사회성과 협력**에 기여할 수 밖에 없다. 언어는 **대규모 공동체**를 만들고 **분업**을 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3] 사고 과정으로서의 언어

인간 언어는 지적 활동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언어와 사고는 깊은 유착 관계에 있다(언어의 사고화+사고의 언어화).
이러한 언어-사고 유착 관계는 다음과 같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체계적인 기억★
짧은 표현에 다양한 정보 함축
대상을 다양하게 범주화하여 기억
심성 어휘집(mental lexicon)

풍부한 사고★
의미 탐색, 인출, 조작, 연결이 유용
생산성 분리성 → 논리적 철학적 사고
공유, 기록, 전달 통한 발전

Part2. 어떻게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1] 언어의 보편적인 특성 : 분절성

“어떻게 분절성을 확보하게 되었는가?”

① 분절적 단위 산출 :
구강 구조의 문제

그러나 청아(聽啞)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설명은 아니다.

② 분절적 단위 지각 :

VOT 범주지각은 다른 동물도 가능
(Klunder & Kiefte, 2006, 친칠라)
But 단순한 차이 구별 이상의
인지까지 가능한지는 의문.

적어도, 소리말 지각의 Top-down효과는
다른 동물에게는 없을 것.

[2] 언어와 사고의 유착

언어-사고 유착 관계에서 언어 발달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초보적
인지

초보적
언어

숙달, 체계적 기억,
풍부한 사고

인지
발달

언어의
질적 차이

여기서 언어의 질적인 차이란, 다른 동물의 언어와 확연히 다른 질적 발달로 맥락에 따른 음운 복원과 같은 Top-down 현상을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작업 기억의 **‘음운 고리(Phonological Loop)’**가 정보를 청각 부호로 유지, 반복해주기 때문에 언어 이해와 언어-사고 유착이 가능해 졌을 것이다.

[3] 언어와 교육

Washoe(Gardener&Gardener, 1975)
백조를 보고 water-bird 생산
But 학습된 “물과 새”를 각각 칭한 것일 가능성

Nim Chimsky(Terrace et al., 1980)
125개 수화 어휘 익힘
But 동물적 필요를 전달에 그침.
소통은 연구자 표정 및 몸짓 모방한 것에 불과
...

인간 언어 교육 결과

① 어휘 습득 속도 매우 느림

② 세대에 걸쳐 지속되지 않음

③ 자발적 언어 활동 이루어지지 않음

④ 구문론적 지식 습득되지 않음

인간만 언어를 생존 수단으로 선택하였고,
아기때부터 언어 교육에 힘쓰며, 그러한 교육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

결론

언어는 사회 형성을 돕고 사고를 풍부하게 해주는 등의 여러 기능을 통해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언어의 작동원리를 다 파악하지 못했다. 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추측만 있을 뿐이고, 심지어 추측조차 불가능한 면도 있다.
따라서 **어떻게 인간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과정은 인간의 한계를 마주하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이 ‘딱히 우월하지 않음’을 느끼게 된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의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았고 어느 정도 우리 뜻대로 그들을 다루고 있다.
그들을 어디까지 다루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와 그 자격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만, 그래도 인간은 지금껏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구를 정복했다는 우월감을 가져왔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고민해보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우월감조차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인간은 과연 지구를 정복했는가? **아니면 그저 언어라는 기회에 의해 지구의 정복자로 ‘만들어졌는가’?**